

# '23년 2차 스마트도시위원회 회의록

2023. 7.

서울특별시  
(디지털정책관)

# 2023년 제2차 「스마트도시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일 시 : 2023. 7. 4.(화) 14:00~16:20

◆ 장 소 :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

◆ 참석위원 : 12명

- 정영식 위원장, 김영미 부위원장, 권용장 위원, 김명희 위원, 김범주 위원, 박석 위원, 심병호 위원, 이경순 위원, 이지영 위원, 이지은 위원, 김진만 디지털정책관(공동부위원장),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 배석 : 디지털수석, 디지털정책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데이터센터소장,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장, 디지털재단 경영전략실장, 디지털정책관 소속 주무관 등 15명

◆ 회의안건(보고안건)

- 디지털정책관 현안업무보고 10건
- 서울디지털재단 현안업무보고 9건

◆ 진행순서

- 디지털정책관 및 서울디지털재단 현안업무 보고
- 현안업무 관련 토론(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 전체)

◆ 회의결과 : 불임 참조

## □ 위원 발언 내용

### 〈간사〉

- 진행순서 소개
- 참석위원 및 내부 참석자 소개

### 〈위원장〉

- 인사말씀
- 공개 회의록 열람·서명 위원 2명 선출
-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안건 일괄 보고 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음

### 〈디지털정책담당관〉

- 디지털정책담당관 현안업무 보고
  - 「서울 웹3.0 페스티벌 2023」 개최 계획
  - ‘서울 스마트도시 상’ 제정 추진현황
  - 디지털 안내사 채용 및 운영
  - IoT 기반 시민체감형 서비스 확산

### 〈빅데이터담당관〉

- 빅데이터담당관 현안업무 보고
  - 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매출증대 프로젝트 확대

### 〈정보시스템담당관〉

- 정보시스템담당관 현안업무 보고
  - 인공지능 행정 추진

### 〈공간정보담당관〉

- 공간정보담당관 현안업무 보고
  - 디지털 트윈 기반 드론 활용모델 실증사업 추진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현안업무 보고
  - 「공공와이파이」 확충 및 시민 이용편의 제고

## 〈데이터센터〉

- 데이터센터 현안업무 보고
  - 클라우드 기반 미래형 전용 데이터센터 신축

##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장〉

- 서울기록원 현안업무 보고
  - 디지털 기반 공공아카이브 운영 및 기록정보서비스 확대

## 〈서울디지털재단 경영전략실장〉

- 서울디지털재단 현안업무 보고
  - 디지털 정책연구
  - AI·빅데이터 서비스 연구개발
  -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지원
  - 디지털 약자 역량강화 교육
  - 로봇활용 시민체감 서비스 운영
  - 서울스마트시티센터 운영
  - 스마트도시 솔루션 해외진출
  - 메타버스 서울 시민참여 문화 조성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증강현실 서비스 운영

## 〈위원장〉

- 보고받은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음.

## 〈디지털재단 이사장〉

- 서울디지털재단은 디지털정책관과 협업이 잘되고 있음.

보고내용을 보면 디지털정책관에서는 정책 수립을 잘하고, 재단에서는 그에 대한 대시민 서비스 실행을 잘하고 있음. 예산확보를 위해서 박석 시의원님이 잘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디지털정책관님도 예산확보를 위해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우리 재단의 대표적인 교육 플랫폼이 ‘어디나 지원단(어르신 디지털 나들이단)’임. 순수하게 어르신을 위한 교육인데, 지금 5년 차 교육중에 있고 올해 2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음. 지난 6월에는 정보문화의 달을 맞이해서, 디지털 포용교육의 성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음. 7월 1일자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지속 발전 가능 인증을 받았음. 투출 기관 최초로, 디지털재단이 유네스코로부터 인증받았음.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에 핀란드 방송국에서도 취재하였고, 또한 시장님께서도 최근에 OECD 챔피언 시장에 선정되었음, 재단의 어디나지원단에서 하는 이런 교육내용이 알차게 잘 구성되어 있어 포용적인 성장에 포함되어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함.
- 재단은 챗GPT 관련하여 민첩하게 대응적인 측면에서 디지털정책관과 상의 하면서 전국 최초로 보고서를 제작하였음. 홈페이지 조회수 10만 뷰, 언론보도 54만 뷰까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주목을 받았음. 시민교육에 이어 공무원 대상 교육도 5회 실시하였으며, 만족도가 96%가 넘는 호응을 받았음.
- 메타버스 서울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1월에 오픈하여 6개월이 되었음. 메타버스 유행이 지금은 소강상태인데, 성급하게 성과를 판단하기는 이른 단계라고 보는 측면도 있음. 회원가입자 수가 8,000명에 다다르고 있는데, 서울시 공무원이 11,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회원수가 서울시 공무원수보다 작다는

의미가 되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함.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가입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재단에서는 메타버스 서울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 5월달에 메타펫 이벤트를 오픈했으며 재미와 경험요소를 추가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사람 아바타가 동물 아바타를 데리고 다니는 재미있는 풍경이 많이 있음. 며칠 전에는 5명이 멤버인 걸그룹 에이디야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으며, 멤버 한 명씩 개, 고양이, 토끼 등을 메타펫으로 하는 홍보활동도 하고 있음. 메타버스 서울의 플랫폼에 대해서 성공 여부를 묻는 것은 아직은 성급한 판단인 것 같음. 5단계 중에서 1단계에서 2단계로 접어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도 지속적으로 잘 봐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음.

- 2021년 10월에 메타버스 서울의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듯이, AI도 종합계획이 만들어져야 하는 시점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수석님의 여러 가지 식견을 받아, AI 종합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시장님도 디지털 선호도시를 많이 강조하시는데, 페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로서 나아가야 할 것임. 저희 재단이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정원은 45명으로 너무 적은 상황이며, 재단 이사장으로서 정원을 2배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자 함.
- 디지털수석님도 계시고 디지털정책관님도 계시는데, 다음 기회에는 서울디지털 재단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기를 원함. 월 700명이 다녀가는 스마트시티센터에 위원님들을 초대하여 위원회를 열었으면 하는 마음과, 재단의 2배 성장이 곧 서울시의 디지털 선도도시로 가는 데 밑받침이 된다는 생각으로 도움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 위원〉

- 이사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의견이 있어서 바로 이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첫째는 스마트시티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에는 센터가

상당히 많음. 예를 들면 교통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TOPIS 센터가 있고, 행정 같은 경우에는 서초동에 센터가 있고, 상암동에 디지털미디어센터가 있고, 많은 센터가 있음. 디지털재단에서 또 다른 센터를 만들기보다는 이미 기존에 잘 되어있는 센터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센터를 안내하는 것이 디지털 재단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 센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영상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지털재단의 정체성에 관해서 지금 잡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음. 이사장님 들어오시기 전부터 ‘도대체 이 재단의 역할은 무엇인가?’ 상당히 의문점이 많았음. 기존에 있는 업무와 중복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을 것임. 스마트시티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관해서 중복되지 않게, 아니며 차라리 탑 센터로서의 코디네이터 역할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미 서울시에는 센터가 너무 많은데, 또 다른 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임.

- 두 번째는 스마트도시 솔루션 해외진출이라고 보고했는데, 이미 전임시장님 계실 때 SH공사에 서울시 정책 해외정책수출지원단이라는 게 있었음. 그 조직과 합쳐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해외정책수출지원단은 만들어진 지 상당히 오래 되었고, 다른 민간기업하고 공동작업으로 해외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참여한 적도 있고, 이 조직을 만들고 서울시에 기획단을 만들 때, 제가 서울시 직원으로서 많은 일부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음. 해외수출, 솔루션 해외 진출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금 갖고 있는 많은 솔루션들이 있음. 교통시스템, 전자정부 등 여러 시스템이 있는데, 이미 SH공사 해외정책수출지원단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세 번째는 AI 교육인데, 교육에 관해서도 서울시에서는 인재개발원이 있음. 그 다음에 디지털정책관이 있고, 데이터센터가 있는데, 여러 가지 디지털에 관해서 AI에 관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들과 업무에 대한 중복성, 기존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관 간의 나눔을 한다면,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고 갈 것인지 디지털재단이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

제가 서울시에서 오래 근무했던 경험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생각한 것은,

이사장님께서 계속 이 조직에 평생 계실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다른 조직에 가더라도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향후 행정에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중복성을 고민해보면 조직을 늘리겠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관해서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 측면에서 심사숙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보고내용을 보면, AI 서비스 발굴이라든지 인공지능 행정 추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서울시가 세계를 선도하는 전자정부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음. 공모전도 언급되어 있지만, 이미 서울시 행정이 디지털 행정임.

이 디지털 행정이 AI 행정으로 가는데 있어,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함. 이미 빅데이터가 많이 구축되어 있고, 각종 센서 기술이라든지 인식기술이 너무나 많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기 때문임. 인공지능 행정 추진과 AI 아이디어 공모 자체를 묶어본다면, 서울시에는 대표적으로 가장 빠르게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120이라고 생각함. 120은 과거, 오세훈 시장님이 만든 치적 중의 하나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일임. 십수 년간 질의응답 한 민원이라든지, 질의응답에 대한 데이터가 너무나 많이 있음. 나올 수 있는 질문은 다 나왔다고 볼 수도 있음. 다만 응답하는 기준들이라든지, 행정체계라든지 통계라든지 바뀌어서, 데이터 정도만 수정하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데이터가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빅데이터로 구축하고, 챗 GPT를 연계하면 좋을 것임. 실질적으로 120다산콜센터 자체 업무가 다른 행정보다 덜 예민한 부분임. 그래서 'AI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체계가 120을 AI 행정 추진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생각을 함.

초기에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AI 체계를 구축하려면 예산이 일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를 줄이는 과정을 감안하면 훨씬 더 좋은 사례가 되고, 결국 인공지능 행정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질 것이라고 생각함. 제가 서울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길게 말씀을 드렸음.



## 〈디지털재단 이사장〉

- 저하고 너무 상반된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가 이상할 것 같아 바로 잡으려고 함. 지난주에 행정감사 민주당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음. 제가 지금까지 22개월 동안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의견이었음. 정체성 부분은 이제는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중복이다, 바람직한가, 시민예산 낭비한다, 결론적으로는 마치 재단이 SH, 인재개발원, 다른 센터와 중복된다고 다른 관점으로 언급하고 있음. 스마트도시위원회는 디지털이 중심이 되고 디지털에 관점을 두고, 그런 업무를 가져와서 디지털 기관을 키워야 한다는 게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관점인데, 오히려 재단이 중복이라는 의견을 주었음. SH공사에 수출지원단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기관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좋은데, 재단이 시민예산을 낭비한 적도 없고, 구조적으로 거르고 중복된 부분을 제외해서 슬림하게 추진하고 있음. 그런 관점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바로 잡았으면 좋겠음.

## 〈디지털정책담당관〉

- 수사는 지금도 SH 안에 있음. 그래서 스마트 정책을 수출해서, 해외 기관들 방문시 그분들에 대해서 서울시 정책을 소개하고 강의하는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음. 재단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솔루션 해외진출은 정책적인 그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가 해외 교류의 장에 직접 참여하여 정책 홍보도 하면서, 스타트업 기업들을 데려가서 해외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 수사는 말 그대로 정책수출단이기 때문에 시 정책적인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사안에 따라서 재단과 수사가 연계하여 참여하는 경우도 있음. 그러므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임.
- 저희가 디지털 격차 해소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 내부에서도 작년부터 계속 역할과 중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일차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는 디지털정책관에서 총괄을 하되, 디지털배움터 사업은 그룹 단위로 국비사업을

하고 있음. 디지털배움터 사업은 시에서 저희가 챙기고, 어디나 지원단은 일대일 사업으로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서로 역할 구분을 하고 있음. 그 외에 타 부서에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도 모두 디지털 교육을 하고 있는 추세임.

그런 사업들은 보조금이나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시 기조실 예산부서하고도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 것을 계속 체크하고 있음.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시와 재단에서 역할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데이터센터에서는 장애인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을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음.

시 차원에서 부서 간의 중복성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염두에 두면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음.

### 〈○○○ 위원〉

-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수사 해외진출 솔루션 관련해서는 수사에서 처음부터 추진했던 사항임. 디지털재단에서 수사와 함께 합쳐서 했다면, 이사장님은 '있는 것도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체가 몰랐으면 안되는 사항임.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할 때는 사실 그런 유사조직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조직을 흡수하여 통폐합을 하면 되는 것임. 제가 중복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업무를 하고 있던 기관이나 부서가 이미 어느 정도 노하우도 있을 것이니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임.

### 〈디지털재단 이사장〉

- 몰랐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디지털재단은 스마트시티 전문 행사만 두 군데 참여하고 있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참여하여 재단이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것이지, 수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임. 재단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스마트업과 함께 참가해서 그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도움을 주는 것이지, 수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음.

## 〈위원장〉

- 이사장님, 이 건은 이 위원님하고 따로 논의를 하시는 것을 권유함.
- 제가 정리하면, 서울디지털재단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이나 센터나 해외진출에 대한 차별화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게 되면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중재안을 드리면서, 나머지 위원님들은 이 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아 주시기 바람.

## 〈디지털재단 이사장〉

- 재단에 대해서 정체성, 중복이라고 반문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을 가져와서 크게 키워내야 하는 것임.

## 〈위원장〉

- 이 건은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민간위원님들이 제안을 드릴 때는 좋은 뜻에서 했다는 것으로 받아 주시기 바람.

## 〈○○○ 위원〉

- 여러 가지 디지털 사업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준비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공감이 되었음.
- IoT 기반 시민체감형 서비스 확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향성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함. 최근에 언론에서 횡단보도 사고나 사망사고 등 보도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IoT 기술이나 센싱 기술을 이용해서, 횡단보도나 교차로에 사고 예방을 위해 알람을 하는 등의 아이디어도 추후에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음.
- 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매출증대 프로젝트 확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림.

단, 마케팅 교육을 수료한 대학생이 매칭으로 소상공업주와 컨설팅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임. 컨설팅해주는 분이 전문적이면, 훨씬 더 상권 분석이나 소상공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므로 차후 조금씩 개선

이나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임.

- 인공지능 행정 추진 관련하여, 챗GPT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색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나아갈 방향임에는 100% 동의함. 단, 우리나라 업체, 예를 들면 N사나 K사에서도 한국형 생성모델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너무 우리가 챗GPT에 종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마치 구글 검색 엔진에 종속되어버리면 곤란한 것과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이 교육은 하시되, 경중 측면에서는 너무 강하게 갈 필요는 없다고 보임.

앞으로 우리는 한국형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 관점에서 한번 고민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

- 공공와이파이 확충 및 시민 이용편의 제고 관련하여, 외국인이나 일반인이나, 심지어 저조차도 많이 사용하고 싶은데 정확하게 어디에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지 알고 있지 않음. 더 많은 사람들이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사용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홍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디지털 트윈 기반 드론 활용모델 실증사업 추진 관련하여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며, 아이디어 강화를 위해서 공모전을 하는 등의 고민도 해보면 좋을 것임.
- 클라우드 기반 미래형 전용 데이터센터 신축 관련하여, 서울시에 데이터들이 더 많아지고 있으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됨. 이에 따른 스펙이 굉장히 중요하며, 데이터의 양이라든가 트래픽, 혹은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어떤 트렌드로 성장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세심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랙이 1,800개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근거가 부족해 보임. 잘못 설계하면 몇 년후에, 수용 용량을 초과해서 또 만들어야 한다면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 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해보면 좋을 것임.

### 〈○○○ 위원〉

- 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매출증대 프로젝트 확대 관련해서, 무척 좋은 프로그램임. 아홉 가지 서울시에서 발표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성을 제시하고 있어서,

무척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은 없다고 보임.

그중에서 실효성 측면에서 의견을 드리자면, 매출도 27.1% 상승하고, 만족도도 96점으로 높아서, 이 수치가 지속 가능하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함.

2023년에는 지원 규모나 지원 대상들을 많이 확대하고 있고, 컨설턴트로 참여하는 2030 세대들 교육도 늘리고, 이 분야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데이터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그들에게 핀포인트의 컨설팅을 제공하려면, 제대로 된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함. 데이터소스를 보면 KT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과 공공데이터가 있는데, 조금 더 다각도로 늘려보면 좋을 것임. 카드의 매출 정보 데이터의 경우 해당 지역 특정 업종에서 얼마만큼의 매출이 일어났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KT는 BC카드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개인정보가 아니라 어느 정도 군집화된 정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인공지능 행정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에서도 챗GPT 열풍은 굉장히 세고, 지난번 회의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음.

AI 시민 서비스는 대고객 서비스이고, 두 번째가 행정혁신이니까 서울시 안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에 대한 혁신, 대부분은 이와 같이 분류함.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안전 인프라까지 분류하였는데, 접근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함. 기업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은데, AI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하면 많은 자문을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120 다산콜센터도 언급되었는데, 질의 응답하는 텍스트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의 정비 등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야할 방향이 나올 것임. 어떤 기업들의 경우 계획 세우는 단계에서 ‘지금부터 데이터 정비 1년 동안 할 거야, 2년 동안 할 거야.’ 라고 진행하는 분들이 있음. 혹시라도 서울시가 이와 같이 체계적으로 도입을 하신다면, 3개 분야 중에서 가장 효과성이 있을 만한 분야를 하나 선정하여 그 영역을 좁게 만들어서 추진하면 좋을 것임, 데이터를 정비해서 실험을

해보고, 효과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한 후 확산하는 방안을 권유드릴.

-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기반 미래형 전용 데이터센터 신축 관련임. 조금은 민감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지난 5월 말에 서울시에서 대피경보가 나왔었음.

저는 경기도에 사는데, 출근을 하는 도중 양재를 지나면서 문자를 받았음.

금융기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이 상황에서 금융데이터들은 안전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전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국가데이터센터를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곳의 기관장으로 근무했었는데 그때도 ‘국가데이터는 안전할까, 미사일 공격, 화생방 공격, 심지어 EMP 공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할까.’ 그런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음. 백업센터를 설계하고 짓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완공이 되었을 것임.

그래서 산 밑에 위치하도록 해서, 바깥에서 보면 그 건물이 데이터센터인지 모르는 상황임. 전쟁이 나도, 14일 동안은 운용이 가능한 센터를 만들었고, EMP나 전자적인 공격 등에 대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센터를 만들었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함.

데이터센터 신축 관련하여 예산 500억은 많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공격을 받는 대피 상황이 되었을때 보호해야 할 데이터는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할 것임. 미션 크리티컬하게 보호해야 할 데이터라면 백업센터도 있고 소산도 하고 있을 것인데, 그 각각에 대한 여러 가지 체계 속에서도, 안전하게 그 데이터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일차적인 셋업을 해야 될것임.

주 센터 입지선정에 있어서, 주 센터를 세우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암을 백업 센터로 쓰신다고 하는데, 그전에 서초하고 상암은 너무 가까운 부분이 있었으므로 주 센터와 상암센터의 거리 등 고려 필요함. 5월에 발생했던 경보 상황들에 대한 국지전이 될 수도 있고 전면전이 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한다면 입지선정, 백업센터의 거리 등 다양한 부분들을 모두 감안해서 추진하기를 권장함.

## 〈○○○ 위원〉

- 저는 아무래도 기술 개발하는 연구원에 있어서, 디지털 관련된 것을 보는 관점이 다른 위원님들과 시각이 다를 수 있음. 제가 느낀 점 그대로 말씀드리니 오해가 없기를 바램. 좋은 점하고 고민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 공공와이파이 관련하여, 제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갔다가 어제 입국했는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TU델프트 공대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었음. 제가 서울 스마트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면서 이슈를 한번 꺼내어 이야기해봤는데, 와이파이에 대한 정말 좋은 이미지, 어디 가나 정보가 통한다는 거에 대한 정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자부심을 느꼈음. 전반적으로 오늘 보고된 아이템들 하나하나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음.
- 고민해야 할 점 두가지를 말씀드릴림. 오늘 보고된 아이템들을 보시면 상 제정 해주고 안내사, 매출증대 프로젝트, 인공지능 행정 이 부분은 아직 스타트하는 단계이고, 드론 활용모델 등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하나씩 다 끊어져 있음. 지금 트렌드는 디스커넥티드를 커넥티드 하는 컨셉으로 완전히 바뀌어, 국토부, 산업부, 과기부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자세히 보시면, 예를 들어서 관련된 데이터 들을 모아 놓았음. 디지털화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과거 방식으로 하면 도저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디지털화시켜서 데이터를 다 모아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임. 사실은 데이터만 모아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음. 이런 것들을 다 모은다고 하는데, 그냥 파트별로 모으겠다는 의미임. 나중에 가면 활용이 잘 되지 않는 데이터가 되어 있음. 실질적으로 그래 왔고, 많이 봐왔음. 지금부터 통합플랫폼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활물류를 밤 10시, 11시에 주문하면 아침 6시, 7시에 가져다 줌. 물론 낮에도 생활 물류들이 돌아다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많음. 각 개인의 특별 고유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음. 어떤 물품을 주로 몇 시에, '내일 주문할 물건을 오늘 배송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함. 아직 주문을 안했는데 내일 주문할 물건을 오늘 배송한다고 하는 미리 예측을 하는 컨셉임.

지금 나와 있는 아이템들을 엮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소비데이터, 각 지역별로 카드데이터를 활용하면, 교통 쪽에서 연구하는 기관들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타고, 어디에서 환승하고, 어디에서 내렸고, 어디에서 무슨 소비를 했고 무엇을 샀는지 다 알고 있음.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라우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고민을 저희 연구원에서도 하고 있음.

서울시는 충분히 집적된 데이터 소스들이 서울시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통합 플랫폼 컨셉으로 이것들을 엮어주는 역할을 미리 그림을 반드시 그려서 가면, 나중에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임. 지금 여기 각각에 대한 아이템들을 찾아보려고 하면 찾지도 못함.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디지털화한다고 하니, 거기에 대한 통합플랫폼 쪽으로 고민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임.

- 어디나 지원단하고 디지털 안내사하고 디지털 관련된 교육을 해주는 것 같은데, 같은 내용을 이름을 달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다른 사업인지, 조금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음.

### 〈○○○ 위원〉

-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함. 저는 기술업체에 있다 보니,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었음.
-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서 나오고 있는 가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통합하고 연결하고,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시너지와 그리고 새로 발견되는 가치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저는 그 부분이 서울 디지털재단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음. 예를 들어서 드론 활용모델 같은 경우에, 드론 체험센터 같은 것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서울에는 S-Map이라는 3D 공간맵이 있음. 또한 메타버스 서울이라는 3D 공간이 있음. 서울을 대상으로 3D맵 여러 개를 이미 만들고 있음. 3D 맵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서울에서도 드론훈련을 시킬 수가 있음. S-Map을 가지고, 소상공인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도 ‘아, 어느 상권이 지금 핫하고, 어느 상권이 떨어지는구나.’ 같은 부분을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

AI, IoT, 빅데이터, 여러 가지 현재 기술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통합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측하고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 것임. 지금 하고 계신 각각의 영역에서 노력해주시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연결하고, 그리고 두 번 투자하지 않게 구조를 짜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임.

### 〈○○○ 위원〉

- 많은 부분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에 대해 이렇게 느꼈음. 서울시를 스마트 도시화시키는데 어떤 정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음. 서울시가 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임. 방금 말씀하시는 사업, 그러니까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겠지만, 서울시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서울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운영이나 관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행정이라고 할 수 있음. 스마트도시라는 의미는 서울시가 스마트하는 것이지, 스마트 도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님.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체계에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스마트화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여기에서 논의해야 할 사업이고, 논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함. 오늘 발표하신 열아홉개의 사업들이 모두 다 필요한 사업임. 서울시에서 해야 할 일들이지만, 아쉬운 점은 서울시의 행정하고 연결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짐.

예를 들어 상권분석을 하면, 상권분석을 하는 목적이 서울시가 상권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가져와서, 그것을 정책에 어떻게 연결시킬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교육을 하는 것은 차선이라고 생각함. 교육도 필요는 하고, 학생들한테 오픈도 되어야 함. 그렇지만,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것임. 다르게 말해서, 서울시는 교육보다는 데이터를 오픈하고 데이터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교육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스마트 횡단보도와 같은 사업은 도로과에서 해야 한다고 보임. 디지털정책관에서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임. 만약 도로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모르고 있다면 이러한 스마트행정, 스마트 횡단보도라는 사업은 일시적인 사업으로 끝날 것 같은 느낌임. 그동안 하는 사업들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과 어떻게 연계시켜서, 이것들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것을 고심 해주기 바람.

드론도 마찬가지로, 드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드론이 몇 시간 동안 비행을 했다면, 실제로 드론이 아니라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임.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얼마큼 행정적으로 임프루브시켰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우리가 드론을 날려봤다, 우리가 뿔 해봤다,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방식의 일차적인 부분이 아닌 이차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임.

- 기록원에서 많은 데이터를 기록한다 했는데, 공간정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은, 공간정보가 앞으로 우리 데이터의 80%를 차지할 것임.

그와 같이 많은 데이터를 공간정보적인 측면에서, 수집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의 과거 문서를 디지털화하는 것보다는 과거를 공간을 이해하는 데이터로 관리를 해줘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 세션 하나를 공간데이터에 대한 부분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임. 예를 들어 이미 서울시에는 일제시대 때나 6·25 때나 그 시대의 항공사진들도 많이 있음. 그런 것들이 서울의 발자취가 될 수 있으며,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임.

- 저는 오늘 회의에서 느낀 부분이, 디지털재단이 디지털정책관하고 소통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조금 더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듦. 내용이 중복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소통을 해서 오버랩되는 부분은 해소하고, 굳이 2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AI 교육 등 행정을 디지털화했을 때 AI 기반으로 행정을 정책을 찾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또 다른 부서에서도 AI 기반의

행정을 이야기하셨으니까, 조금 더 소통하여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임.

## 〈디지털수석〉

- 저는 디지털수석을 맡고 있어서, 사실은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공감되는 부분은 있는데, 오늘 이 자리 자체가 디지털정책관 중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이 우선이 될 수는 없음.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디지털적인 일들이 오늘 보고하는 과제만 있는 것이 아님. 소상공인 관련해서도, 소상공인 소관 부서에 담당도 관련되어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음. 각 실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음. 다른 쪽 조직에서도, 특히 여러 복지실에서도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음. 물론 디지털적인 기술이 도입되지는 않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기술을 접목시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은 사실 기술 중심으로 많이 논의되었음.

그래서 각 사업들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각 실국의 사업들을 디지털정책관에서 함께 지원하는 업무도 있겠지만, 저도 6개월 근무하면서 느꼈지만 일반적으로 과제는 각 실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각 실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디지털정책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음. 예를 들어 복지실에서 디지털로 어떤 부분을 좋게 만들었다고 하면, 디지털정책관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추진되지 않고 있음. 복지실에서는 본인들의 사업으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사업들이 서로 엮이기가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결되어야 할 것임. 전반적으로 서울시 모든 사업에 디지털정책관이 관여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추진하기에는 인력이 너무 적음. 서울시 정책관들이 많지만, 각각의 사업들이 디지털로 접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는 외주를 두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디지털재단에서도 각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외주를 두어 추진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함.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실국에서 디지털로 추진하려고 함. 복지실도 전부 다 디지털로 접목시켜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가려고 함.

디지털정책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그것들을 같이 연관

시키는 작업들을 하고는 있음. 마찬가지로 AI 행정들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음. 당장 필요한 것을 디지털정책관에서 해결수 있는 것이 아님, 각 실국에서 AI로 어떻게 행정을 바꿔 가느냐. 그렇다고 하여 디지털정책관에서 모두 바꿔 줄수는 없는 것임. 그래서 역할들을 접목시키는 역할을 해야 함.

- 시장님께서 다산콜센터도 AI 행정을 하라고, 제일 먼저 저에게 지시해서 다산콜센터와 계속 협의를 하는중인데, 첫 번째로 진행되는 사항이 AI 콜임. 콜을 미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AI로 가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음. 두 번째로 콜 미싱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야 함. 무척 예민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기술이 해결되었다고 될 것은 아니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그래서 다산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보조재료로서 챗GPT를 활용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한계 있는 부분이 있어 테스트 중임.

언론에서 거론되는 만큼의 기술들이 완벽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기술적인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임. 기술이 완벽하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기술이 지금 안되는 부분들도 있음. 그러한 접목들을 계속 하고 있고, 점점 더 디지털정책관에서 해야 될 일이 커지고 있음.

- 오늘은 디지털정책관에서 주도를 하는 사업들 위주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다른 실국에서 일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부위원장〉

- 발표 잘 들었고, 위원님들의 여러 코멘트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많이 공감하고 있음.
- 이 회의는 스마트도시위원회이고, 서울시가 스마트도시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 중요하고, 실제 서울시가 보다 더 스마트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아이тем들을 빼놓지 않고 잘 다루고 있다고 보여짐.
- 단, 일부 과제들이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는 하겠지만,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예산을 사용해야 하다 보니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맞춰져서 그 항목들이 이렇게 사업하고 연결이 되는 것임. 그러다 보니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의 가장 밑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행사를 해야 하고 다 좋은데,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다른 것과 비교해 봤을 때 강점은 '굉장히 많은 엄청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임. 그래서 그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어떻게 활용하고, 그 활용을 통해 서울시만의 역량을 발휘하여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좋은 모델들을, 서울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큰 틀에서의 시각도 서두에 나와줬으면 좋겠음.

- 근본적으로는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율이 되고 있는지도 중요함. '각 부서마다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조율이 되어서 실제 서울시에 어떤 역할과 영향을 줄 수 있고, 스마트도시로서 이런 면모들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버넌스 역량이 소개되어야 할 것임.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보다 더 스마트한 행정을 하기 위해 세부과제가 주어졌고, 향후에는 어떤 면들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미래의 모습도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임.

인공지능 관련하여 행정 추진하는데 있어서, 세부적인 교육 중심에 치중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행정을 추진해서 근본적으로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도 높아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실질적으로 스마트도시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면들이 있는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대상을 조금 더 차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교육이라는 것이 한번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순차적인 역할이 있어야 함. 실제 이 사업들을 통해 나중에 성과로 연결할 때도, 보다 더 스마트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 올해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에는 어떤 단계로 성장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지, 설명이 되면, '이 사업들이 연결고리의 의미가 있구나,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서울시를 보다 더 강한 서울시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강점이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함.

## 〈○○○ 위원〉

- 저는 매회 참석할 때마다 너무 준비 잘해주시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서, 볼 때마다 감동을 받고 있음.
- 저는 법 쪽이 전문이다 보니, 챗GPT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함. 디지털재단 쪽에서는 클라우드 모델에서 개발한다고 하였는데 학습데이터를 넣을 때, 이루다 사건도 있었으니 개인정보 관점에서 잘 알고 있을 것임. 데이터를 넣을 때, 예를 들어 120 다산콜센터 정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들어가면 이슈가 될 수 있으니, 한 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학습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미 정제작업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모든 기업들이 이 챗GPT를 다 쓸 수 있는 상황임. 쉽게 가입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요즘 유료도 있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 편의를 위해서, 개인들이 정보를 그냥 프롬프트로 넣는 경우들이 있음. 삼성도 그렇고 기업 보안이 크게 이슈가 되어, 아예 챗GPT를 막는 기업도 있고 바이트 수를 제한하기도 함. 내부형으로 AI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곳들도 있음.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챗GPT를 활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임. 저희 사무실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음.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컨피덴셜한 정보라든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이드가 필요할 수 있음.

- 드론 관련해서는, 촬영을 하게 되면 공간정보 쪽은 외부 유출만 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사람을 촬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목적이 주로 안전이나 치안을 위한 것이겠지만, 근거 법률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다만 정밀 촬영을 하다 보면, 그 이상의 개인정보들이 촬영되는 경우들이 있음. 그와 관련하여, 올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상 9월 15일에 시행이 되는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장치의 처리근거가 새로이 도입이 될 예정임. 예전에는 모두 동의를 받아야 했다면, 이제는 촬영할 때 불빛 등을 활용해서 촬영하고 있음을 잘 알리면 됨. ‘보행자들이 지나가면서 봐도 별로 인식하지 않고 넘어

가더라.’라고 하면 동의를 추정해주는 근거조항들이 들어왔으므로, 적절히 활용 할 수 있을 것임.

### 〈○○○ 위원〉

- 제가 디지털정책관 현안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디지털재단의 현안업무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고자 함. 저는 디지털재단 보고를 보면서 세가지 이유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음.
- 저는 이번이 두 번째 회의 참석이고, 서울시가 여러 가지 결의되고 보고된 사항 들이 있는데, 다는 알지 못함. 그래서 지난 회의자료와 이번 회의자료를 비교해 보면, 아홉 가지 사업에 대하여 얼마 정도의 예산을 쓰는지, 또 어떤 성과가 있는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와닿지가 않았음.

예를 들면, 디지털 정책연구나 실적들이 대부분 건수로 카운트가 되었음. 몇 건을 했다, 개발착수 3건을 했다, 디지털 약자 역량 강화 교육도 교육생 수가 5,425명이다, 3번의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5회에 154명 교육을 했고, 공무원, 공공기관, 신입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 로봇 활용 등 성과가 건수에 머물러 있음. 약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시켜서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단순 건수를 넘어선 성과, 어떤 이익이 있었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싶은데, 올해 사업이어서 성과가 없는 것인지 궁금했음.

예를 들어 메타버스 서울 시민참여 문화 조성이라는 게 여덟 번째 사업인데, 서울시 메타버스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 펫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 하면, 활성화가 되는 걸까. 지금 많은 메타버스에 사업들이 많이 축소되었고, 여러 가지 MOU를 놓고 보면, 코로나 엑데믹 이후로 SK텔레콤의 이프렌즈 등 많이 줄어들었음. 메타버스라는 것은 제대로 구현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플랫폼임. 지금 시점에서 명확하게 메타버스 활성화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저도 메타버스 서울 회원가입해서 들어가 봤는데, 펫 방식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인지,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증강현실을 구현해서, 핸드폰 갖다 대면 길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것인지, 증강현실로 구현해서 노약자분들이 핸드폰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민이 필요함.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하기 위한 기술은 수단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들이 있음. 이에 대한 성과라는 것이 단순하게 몇 건을 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울시민들에게도 어떤 이익을 주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면, 예산 낭비라는 느낌을 피할 수 있을 것임. 이런 관점에서 다음 회의 자료가 준비되면 좋을 것임.

- 한 가지 정책제안이 있는데, 제가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하여 고진 위원장의 강의를 들었음.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공무원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음.

중앙정부 국세청에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지만, 지방정부에서 달라고 하면 잘 공유하지 않음.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불균형도 있고 잘 공유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지방정부에서 화성시나 경기도와 같이 데이터 분석을 해보려 하면 중앙정부 국세청 데이터가 필요한데 공유가 되지 않음. 제가 중앙정부 기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별법 등의 이유로 공유가 되지 않았음.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국민을 위해서만 가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지방세나 국세를 내는 것은 국세는 홈택스, 서울시 지방세는 이택스, 경기도는 위택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세금을 내려고 하면, 홈택스에 들어갔다가 위택스에 들어갔다가, 서울시 이택스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음. 왜 국민이 3번을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한곳에만 들어가면 뒤에서 공무원들이 지자체 세금 등 정보들을 나누게 하겠다는 것이 고진 위원장의 의견이었음.

'정부24에 6,000개 정도의 민간서식들이 있는데, 1,000개 정도는 한번에 다 처리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링크를 제공해주고 다시 로그인하게, 국민들을 번거롭게 해야 하느냐는 의견이었음. 서울시도 그런 관점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플랫폼정부와 같은 서비스를 생각한다면, 중앙정부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것이므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임.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함. 국세청에 특별법이 있어서



‘국세를 위한 국세청에서만 쓸 수 있는 데이터’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은 것들을 다 오버라이드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함. 감사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면책 특권을 주겠다는 것임.

몇 가지 정책적인 것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중앙정부하고 발맞춘다면 서울시에서도 중앙정부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준비하고, 서울 시민을 위한 플랫폼정부를 가져갈 수 있는 큰 정책이 하나 나올 수 있을 것임.

### 〈디지털재단 이사장〉

- ○○○ 위원님께서 디지털재단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공공기관의 감사도 해보고, 타 기관의 위원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얼마나 저희 재단을 스터디하고 오늘 보고서를 얼마나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피상적으로 앉아서 보신 느낌으로 의견주실 때는 단어 선택에 굉장히 조심해야 함.
- 재단이 이전에 사업을 하면서 해왔던 성과에 대해서 몇 명 교육을 했다면, 100명이든 1,000명이든 교육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임. 그런데 성과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제목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증강현실을 하는 것이고, 목적이 역량 교육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시민들의 역량이 올라가는 것임. 그런데 성과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다음 회의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됨. 행정감사 지적하는 곳도 아니고, 다음에 참여하고 싶지 않을 것임. 이전 스마트도시위원회와 분위기가 너무 다른 것 같은데, 디지털재단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질타를 하는 것인지 용어선택을 잘해주기 바람.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왜 그러는 것인지 좋은 뜻으로 받아 들일수가 없음.

### 〈○○○ 위원〉

- 제가 두 번째 참석이고, 아마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일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저한테 주어진 내용이었음.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섭섭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고서 작성을 하실 때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성과를 포함시켜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린 것임.

## 〈위원장〉

- 지난번 회의하고 상당히 다르면, 위원장이 회의를 잘못 진행했다는 소리로 들리니 저를 질책해주기 바람. 다음 회의부터는 조금 더 부드럽고, 서울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아마 디지털이라는 관점도 그 단어를 가지고 서울시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반이 되다 보니, 수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 마지막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사업이 ○○○ 위원님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별 아름다운 로고가 끼워졌을 때 로고가 어떤 모양이 되는가를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은 상황인 것 같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제언이라고 받아들이면 감사하겠음.

## 〈디지털정책관〉

- 오늘 이렇게 다들 바쁘신데도 위원님들 참석해주시고, 여러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저희 고민되는 지점을 이렇게 지적해주신 것으로 받아들임. 여러 위원님께서, 부서별로 단절된 업무보고처럼 비슷하게 추진하는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 칸막이가 있다 보니, 부서별로 추진하는 업무들 위주로 보고가 되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고되지 않은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작성했어야 하는데,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잘 작성될 수 있도록 큰 시각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각 사업별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 담당 부서별로 더 고민을 해보겠음. 지적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바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들이 또 대부분 우리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임. 우리 과장님들 다 참석해주셨지만, 부서별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과장님들께서 잘 고민을 해주시고, 더 필요한 의견이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업별로 분야별로 전문성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또 한번 여쭙보고 자문도 구하고 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림.

- 중복성 부분이라든지, 재단과의 역할 분담 문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서울시도 물론 당연히 재단과 중복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도 각별히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그렇더라도 아마 외부에서 보실 때는 비슷하게 보이는 사업들이 또 있을 수 있음. 지금 현재로는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중복성 있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유념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저희가 잘되라는 의미에서 주시는 고언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일 것이고, 위원님들 앞으로도 저희한테 계속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받아서 노력하겠음.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 오늘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차 서울시 스마트도시위원회를 종료하겠음.